

건축경기 호황누린 지난해 건설사 121개 신생

2016년 도내에 121개의 건설업체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림픽 준비 등 건설경기 호황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6년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건설업체 수는 3,713개로 집계됐다. 2015년보다 121개 늘어났다. 경기(414개), 광주(165개), 대구(150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신생업체가 많았다. 도를 포함한 전국 건업공사 매출액은 356억6,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8조1,000억원 증액됐다. 국내 전반적인 건축경기 호황이

건설업계 특수를 견인했다.

다만, 지역 건설업계는 신생 건설업체 증대에 따른 경쟁 관계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 10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9월 대비 60.5% 줄어든 2,151억원에 그쳤다. 올해 최대 감소 폭이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이 20%가량 감액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 물량은 점차 줄어드는 과정에 접어든 반면, 업체 수는 늘어나 경쟁 관계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종현기자